



香 港 經 濟 貿 易 代 表 部  
Hong Kong Economic and Trade Office

2019년 11월 20일

수신

KBS 제작본부장 및 KBS 시사직격 제작진 귀하

(참조) KBS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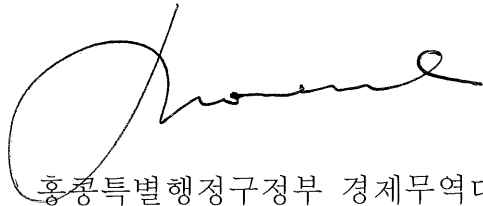
지난 11월 8일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에서 ‘홍콩, 자살당하다’라는 제목의 에피소드가 방영되었습니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해당 에피소드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내용의 정정을 위해 이 공문이 시사직격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게재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해당 화를 통해 방영된 내용이 실제 홍콩 상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홍콩에서는 ‘자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주장은 노골적인 거짓입니다. 자살과 불가사의한 실종, 항구에 떠다니는 시체들에 관한 주장은 부정직하며 입증되지 않은 주장과 소셜 미디어의 소문을 무작위로 모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현직 홍콩 경찰이라 주장하는 복면의 남성이 KBS 방송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찰의 몇몇 작전에 대해 고발한 사실도 접하였습니다. 홍콩경무처는 지난 11월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러한 주장이 모두 불합리하며 악의적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경무처에는 대중이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상설 시스템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마스크를 벗고 경찰에게 불만을 얘기해야 맞을 것입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상대로 먼저 작전을 개시하지 않습니다. 시위대가 차도를 막거나, 바리케이드를 세우거나, 방화를 저지르거나, 사유 재산 혹은 공공 기물을 파손하거나, 행인을 공격하거나, 벽돌을 던지거나, 화염병을 던지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그에 대응할 뿐입니다. 최근에는 시위대가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경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법 집행기관은 법을 무시하며 경찰을 공격하고 생명과 기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홍콩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기로에 놓인 현시점에 우리는 홍콩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려는 폭력 시위를 거부하고, 모든 불만 사항에 관해 평화로운 해결과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동참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 경제무역대표부  
대표 호거화 (Thomas Wu, 토마스 우) 배상